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8. 31 | IBKS Research

Insight Monthly 9 2026



반도체

가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AI/인터넷/게임

화학/정유

유통/식자재

유틸리티

통신

자동차

2차전지

건설/부동산

제약/바이오

화장품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8월	9월	10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삼성전기, 아모텍
IT/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선익시스템
AI/인터넷/게임				NAVER, 크래프톤
화학/정유				S-Oil, 코오롱인더
유통/식자재				GS피앤엘, 서부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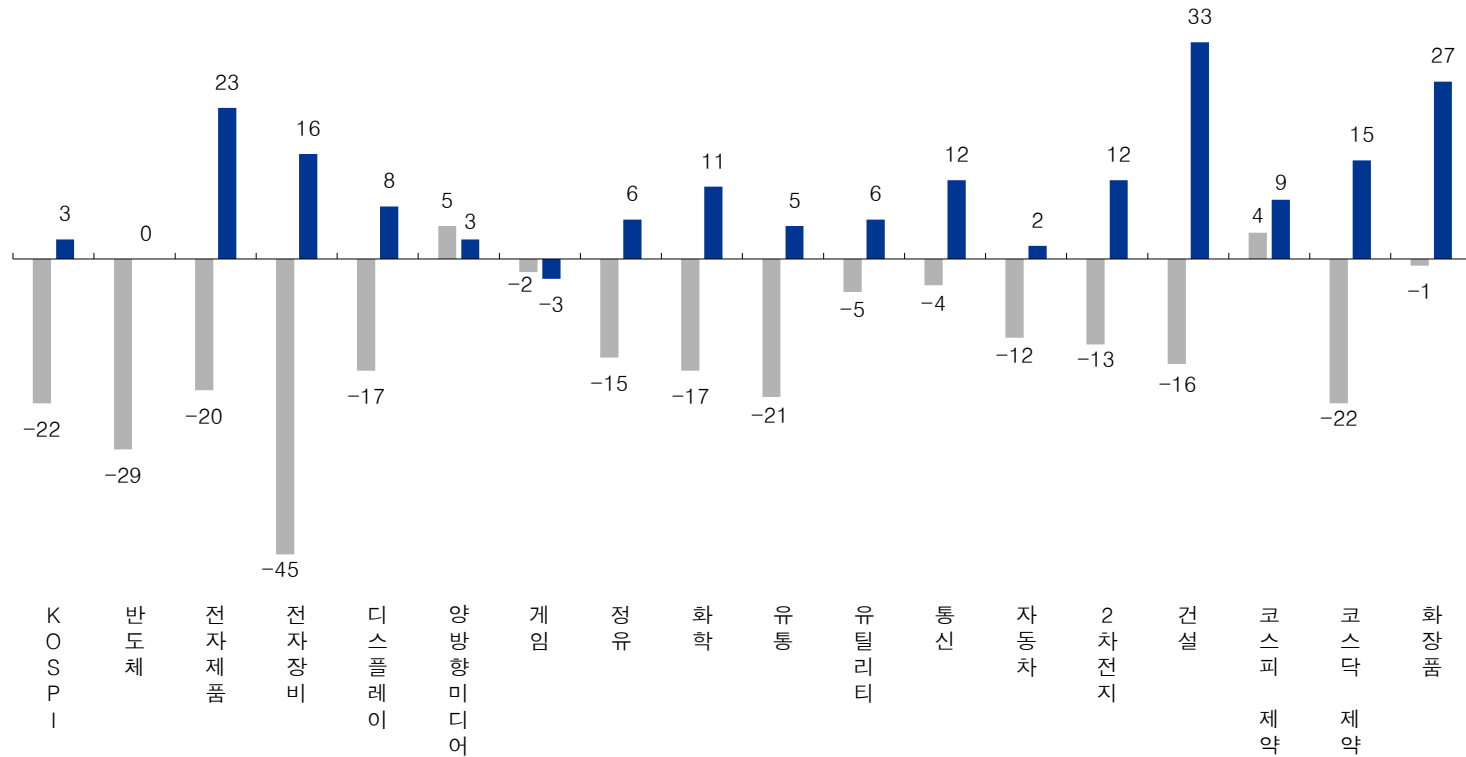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8월	9월	10월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비에이치아이
통신				KT, LG유플러스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삼성SDI, 더블유씨피
건설/부동산				GS건설, 성광벤드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오스코텍
화장품				에이피알, 한국콜마

업종별 수익률

(%)

■ 7월 수익률 ■ 8월 수익률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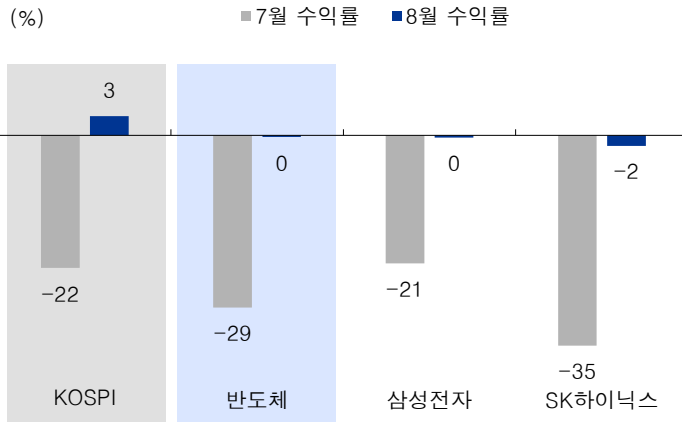


IT/반도체

8월

성과 분석

- 8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0.3%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3.5%p 하회
- 실적 발표 이후 8월 종순까지는 삼성전자로 수급이 좀 더 집중되었으나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은 상반된 흐름. SK하이닉스는 공시 이후 15.3% 상승, 삼성전자는 공시 이후 5.5% 하락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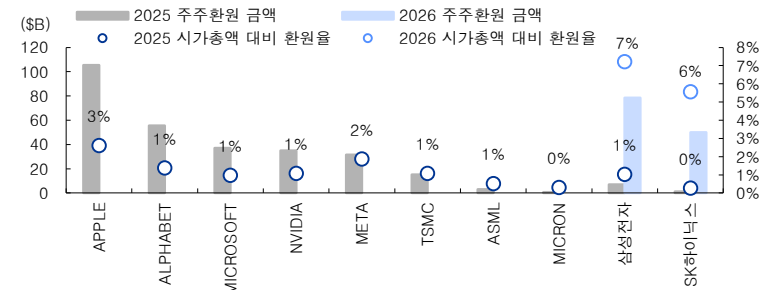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주주환원 Rush

- SK하이닉스는 8월 19일에 자사주 40조원 소각 공시. 26년 11월 19일까지. 이외 매 분기 추가적인 주주환원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고. 26년 예상 규모는 100조원
- 삼성전자는 8월 21일에 공시를 통해서 26년 3분기 30조원 내외 규모의 배당과 추가적인 주주 환원 계획이 있을 것으로 밝힘. 2026년 총 규모는 90~110조원으로 예상
-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 삼성전자는 배당을 먼저 밝힘으로써 양사의 주주환원 수단에서 차이를 보임

Major Tech업체들의 시총 대비 주주환원률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IT/반도체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3분기 중 DRAM, NAND 모두 1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전망
-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으로 수급 안정 기대
- NVIDIA가 언급한 장기 부품 수급 계약은 안정적 DRAM 수요를 방증한 것으로 판단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메모리 업체들 실적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9월

Top Picks

삼성전자

- 26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05조원, 영업이익 116조원으로 전망
- DS 사업부 영업이익 116조원으로 추정. DRAM, NAND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
- MX사업부 영업적자 1조원으로 추정
- 원/달러 환율 변동으로 10% 내외 하향 조정이 필요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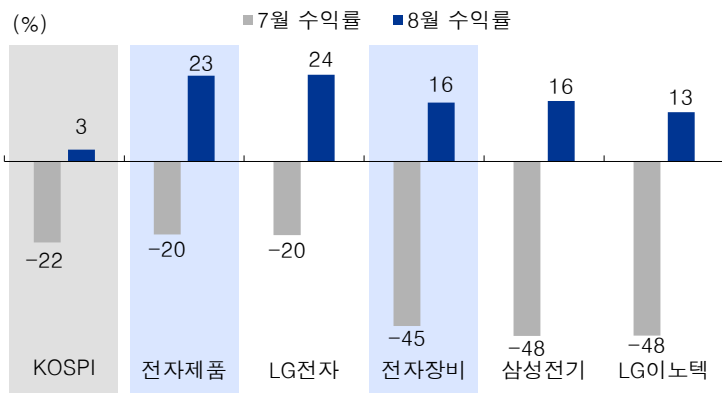
- 26년 3분기 매출액 97.7조원, 영업이익 79.5조원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하향 조정 필요
- 11월 19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40조원 소각 외에 추가적인 주주환원 계획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주환원은 자사주 규모가 배당보다는 많을 것

IT/가전/전자부품

8월

성과 분석

- 8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23.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0.1%p 상회
- 8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16.1%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8%p 상회
- LG전자는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솔루션을 발표하며 큰 폭으로 상승. 삼성전기는 MLCC 가격 인상 소식에 상승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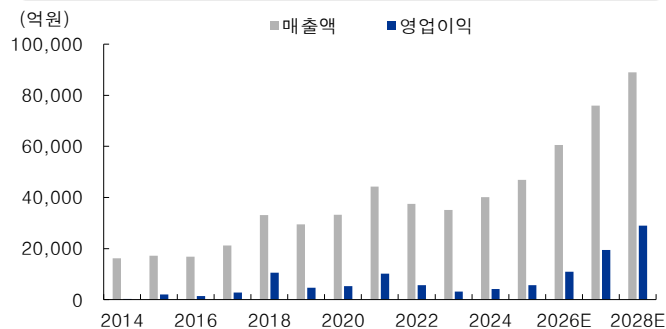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MLCC, 가격 인상 시작

-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인상 기대감에서 확신으로
- 처음에는 유통채널 가격 인상, OEM업체로 확산
- 고성능 제품에 생산능력이 집중되면서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
- 이전에 전망한 속도보다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삼성전기 MLCC 실적 전망



자료: 삼성전기, IBK투자증권

IT/가전/전자부품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 될 전망. 모바일 관련 부품은 폴더블에 수혜 집중
- 가전 비수기 진입
- SOCAMM2 매출 본격화
- MLCC 가격 인상 효과 기대
- 원/달러 환율은 부정적 요소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9월

Top Picks

삼성전기

- 기판/MLCC가 성장 동력
- 최근 주가는 크게 조정 받았으나 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
- 3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
- 삼성그룹 원/달러 환율 전망이 보수적이었던 영향
- 3분기 실적 가이드스 상회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

아모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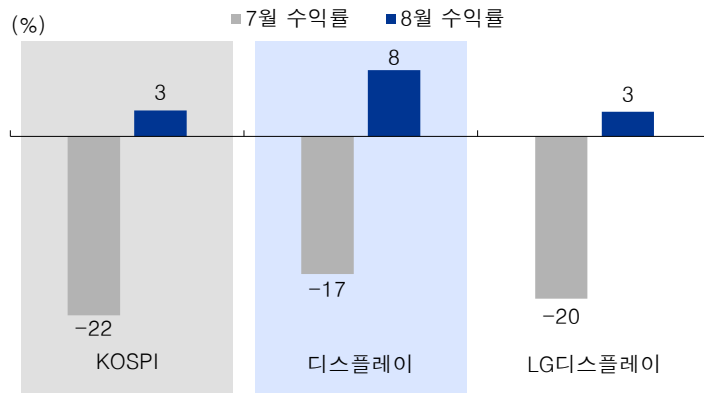
- MLCC가 성장 동력
- 최근 주가는 크게 조정 받았으나 성장 모멘텀은 유효
- 26년 3분기 AI 매출 본격화. 매출 및 수익성 개선 동반될 것으로 기대
- AI는 코히런트, 전장은 BYD가 주력
- AI는 InnoLight, 마벨, 루멘텀, AMD로 고객 확장할 것으로 기대

IT/디스플레이

8월

성과 분석

- 8월 디스플레이 업종 지수는 +8.2%를 기록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5.0%p 상회함
- 디스플레이 업종은 메모리발 단가 인하 압력에도 상승. 본격적인 성수기 효과 반영
-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의 하반기 수익성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 하락시 실적 개선 기업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할 것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中 HKC, OLED 시장 진출 가시화

- 중국 LCD 패널사인 HKC가 쓰촨성 H7 Fab을 활용해 OLED 시장에 진출할 예정
- H7은 총 2단계로 구성. 1단계는 LCD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이미 장비기 설비에 대한 공급사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2단계는 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 SDC, LGD 등 대부분 OLED 제조사가 채택한 Half-Cut(원장을 반으로 잘라 사용) 방식이 아닌, Full-Cut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
- FMM을 사용하지 않는 eLEAP 방식의 증설이 예상되었으나, FMM&Full-Cut 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장비사의 수혜 기대

IT/디스플레이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디스플레이 업종은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를 지나는 중. 북미 SET업체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하이엔드 OLED 출하량 전망치 상승
-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 계절적 성수기 돌입에 따라 계단식 성장이 기대되나,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인한 SET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
- 9월, 애플의 Foldable 스마트폰이 공개될 예정. 패널 생산이 2분기부터 선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출하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9월

Top Picks

덕산네오룩스

- 2분기 별도 실적은 매출액 약 523억원, 영업이익 약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
- 삼성디스플레이 A6 양산 가동 시작으로 전방 고객사의 생산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
- 북미 최종 고객사의 Foldable, Notebook, Tablet 등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한 OLED 신제품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선익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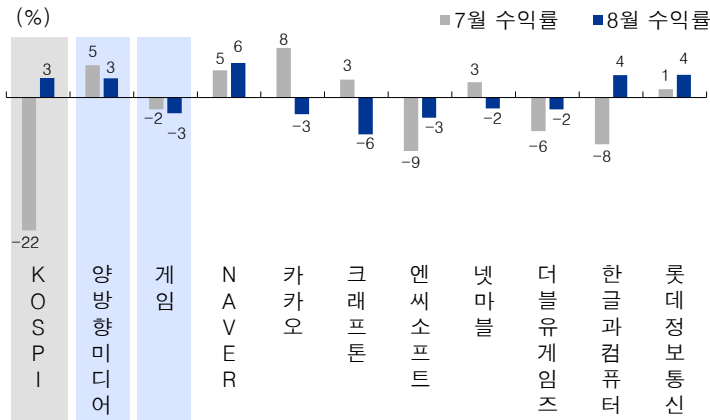
- 하반기에는 OLEDoS 및 대형 증착기 제품 출하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 대형 증착기 매출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Q26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타임라인이 다가오면서 관련 장비 매출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 내년 상반기 중 수주 가능성 존재

AI/인터넷/게임

8월

성과 분석

- 8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3.2%를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0.1%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2.7%를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5.9%p 하회함
-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
- 게임 업종은 게임스컴 2026을 앞두고 신작 기대감이 부각 되었음에도,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월 대비 하락함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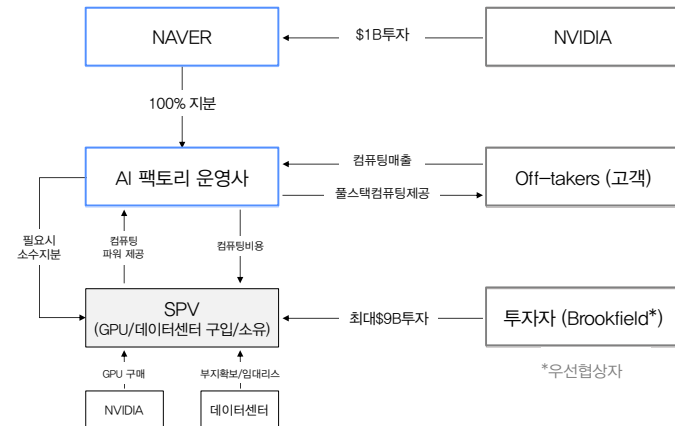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NAVER, AI 팩토리 사업 구조도 공개

- NAVER가 엔비디아(10억 달러 지분 투자)와 브룩필드(최대 90억 달러 인프라 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AI 팩토리 사업의 계약 구조를 공개함
- 엔비디아 지분 투자를 통해 안정적 GPU 공급망을 확보하고, 브룩필드 SPV를 통해 재무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임

NAVER AI 팩토리 1단계(200MW) 사업 구조도



자료: NAVER, IBK투자증권

AI/인터넷/게임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인터넷 업종은 AI 팩토리 사업, 구조 개편 등의 이슈로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함
- NAVER는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됨. GPU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요처 확보가 선행되어야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게임 업종은 크래프톤·엔씨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게임스컴 2026에 신작을 대거 출품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섬. 2027년 신작 출시가 예정된 게임사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이 기대됨
- 최선호 기업으로 NAVER와 크래프톤을 제시함

9월

Top Picks

NAVER

-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한 대규모 AIDC 구축 가시화됨. 엔비디아의 직접 지분 투자 및 브룩필드의 대규모 자금 지원(최대 \$9B)을 바탕으로 진행
- 네이버는 7년 이상 GPU 인프라를 자체 구축·운영하며 LLM을 직접 개발·적용해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아시아 지역 확장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크래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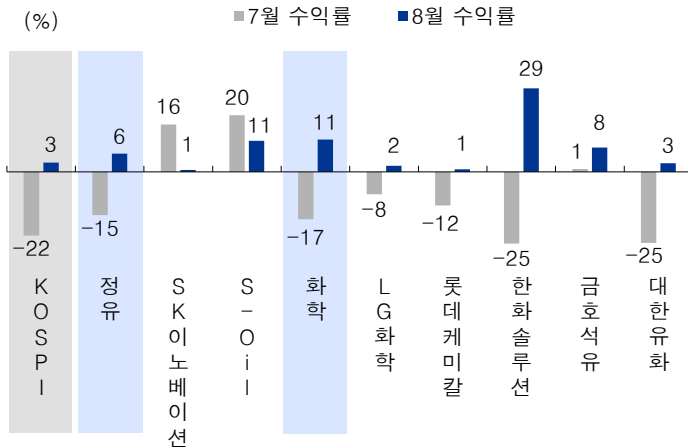
- 신작 파이프라인 가시화 및 기대감 대두. 8월 게임스컴 행사에서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5종의 신작(NOLAW, TARAE, ZETA 등)을 공개하며 신작 파이프라인 검증 및 부재 우려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자사주 취득 및 전량 소각(2026년 3분기 1,000억 원 추가 등)을 지속하며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와 하방 지지력을 증명함

화학/정유

8월

성과 분석

- 8월 정유 업종지수는 6.3%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3.0%p 상회. 유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등경유 등 중간유분과 윤활기유 크랙 강세에 기인
- 8월 화학 업종지수는 11.2%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7.9%p 상회. 범용 업체들의 2분기 실적 호조세 전망 때문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정제마진 고공행진

- 미국 정제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침
-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정제시설 차질도 추가적인 디젤 공급 부족 야기

그룹 III 윤활기유 슈퍼 사이클

- S-Oil 2분기 윤활기유 영업이익 4,770억원 기록. GS칼텍스도 윤활유 사상 최대 실적
- 중동 공급 차질은 단순 일회성보다 공급 회복 시간이 핵심
- 9~10월에는 유럽 휴가철 종료에 따른 재고 재축적, 주요 설비들의 정기보수, 아시아의 계절적 수요 회복으로 추가적인 스프레드 개선 전망

화학/정유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화학 업종은 부정적인 래깅 효과 발생으로 8월 대비 실적 흐름 개선 제한 전망. 합성수지/합성고무/라텍스 등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또한 수출주에 비우호적인 환율 효과 예상됨
- 9월 정유 업종은 높은 등/경유 스프레드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또한 등/경유 스프레드 급등으로 윤활기유 또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전망. 특히 그룹3 윤활기유는 경쟁사들의 생산차질로 올해 높은 수익성 유지 예상. 다만 운임과 환율은 부정적으로 작용 전망

9월

Top Picks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사힌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중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코오롱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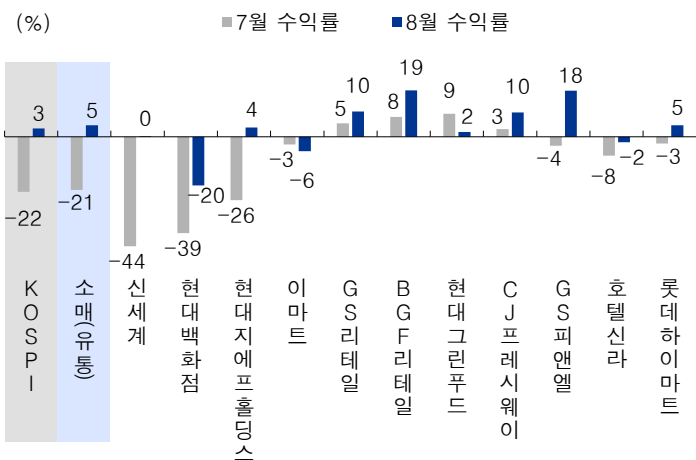
- A사향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CPI 필름 판매 확대 예상됨. 화학섹터에서는 A사향 수혜 가능성이 가장 큼
- 아라미드의 경우 AI 데이터센터향 판매 확대로 공급 과잉 축소 예상

유통/식자재

8월

성과 분석

- 8월 유통 업종 지수는 4.6% 상승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약 1.4%p 상회
- 8월은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확대, ▶ 고마진 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코스피 수익률 상회한 것으로 분석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외국인 인바운드 확대 지속

- 외국인 관광객 수의 가파른 증가와 소비액 확대가 백화점, 면세점, 호텔 등 인바운드 관련 업종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7월 외국인 관광객은 209만 3,223명 (YoY +20.8%)으로 올해 월간 최대치 기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인바운드 성장 견인
- 과거 면세점 채널 중심이었던 외국인 쇼핑 수요가 백화점, 편의점 등으로 다변화 중

홈플러스 영업 재개 및 구조조정 진행

- 8월 5일 법원 허가를 거쳐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유입. 13일에는 67개 점포 영업 재개
- 비핵심 37개 점포 폐점과 인력 최소화, 매장 면적 축소 및 식품·PB 중심 상품구조 개편 등 고강도 구조조정도 병행
- 9월 2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심리·결의하기로 결정. 가결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 가능성

유통/식자재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24~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선물세트 중심의 명절 수요가 본격 반영될 전망
-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장으로 9월 중국인 방한 수요 이어질 전망. 이에 따른 면세점 매출 개선 기대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국내 여행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객실점유율 상승세 지속.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지가 서울·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방권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호텔의 외국인 숙박 수요 증가 기대
- 편의점은 여름철 성수기 종료로 음료·아이스크림 등 계절성 상품 판매 모멘텀 둔화 예상. 추석 연휴 귀성·여행 수요 증가로 주거·오피스 상권 점포의 트래픽 감소 가능성도 존재

9월

Top Picks

GS피앤엘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90억원(YoY +41.7%), 영업이익 294억원(YoY +153.9%) 달성
- 1) 방한 외국인 수요 성장, 2) 웨스틴 파르나스 영업 정상화 (투숙률 91.5%)에 따른 이익 증가 본격화, 3) 나인트리 이용객 (투숙률 88.6%) 증가와 객단가 상승 등
- 다국적 고객층 및 하이엔드 수요 확대 확인

서부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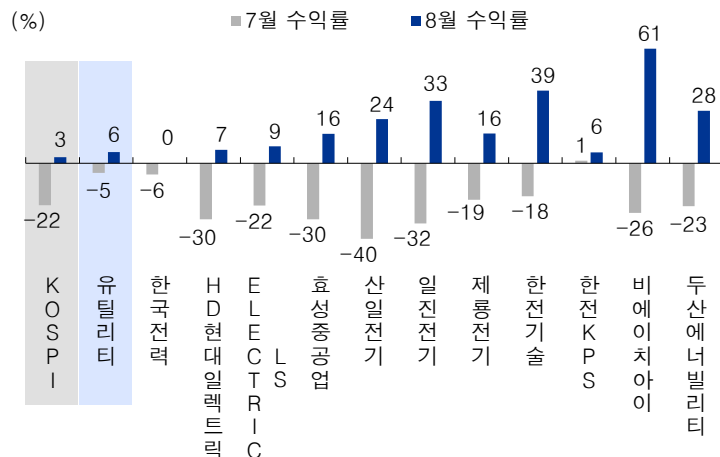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77억원(YoY +60.5%), 영업이익 182억원(YoY +63.0%) 달성
- 1) 외국인 방한 수요 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면서 객실단가 및 투숙률 상승, 2) 자산가치 상승 및 소비계층 증가에 따른 쇼핑몰 영업실적 성장세, 3) 기타사업부 적자폭 완화 등
- 2분기 درا곤시티 호텔 이익은 YoY +36.0% 수준 개선. 재산세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실질 이익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유틸리티

8월

성과 분석

- 8월 유틸리티 업종은 5.9%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7%p 상회함. 전력기기 업종이 전반적으로 높은 실적 성장세 지속
- 비에이치아이가 호실적 기록하며 61%로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설에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39%), 두산에너지(+28%) 등 크게 상승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유틸리티 업종,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 시현

- IBKS 커버리지 11개 기업 중 2Q26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6개, 부합은 2개, 하회는 3개사
- 특히 비에이치아이(HRSG·보일러 수출), 대한전선(초고압/해저케이블 수출, 판매단가 개선)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한국전력(연료비 상승), 한전KPS(경비 증가)는 컨센서스를 30% 이상 하회

2Q26 실적 vs 컨센서스

(단위: 억원)	2Q26 실적		전년 대비		컨센 대비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비에이치아이	2,963	455	75.0%	123.1%	19.5%	53.1%	상회
대한전선	11,987	608	30.8%	113.0%	13.1%	43.9%	상회
일진전기	6,374	720	21.9%	91.4%	9.2%	29.7%	상회
두산에너지	47,248	3,143	3.4%	15.9%	1.3%	19.5%	상회
LS에코에너지	3,503	253	40.0%	7.0%	12.8%	10.7%	상회
LS ELECTRIC	15,770	1,785	32.2%	64.4%	5.3%	8.9%	상회
산일전기	1,642	620	28.0%	34.3%	1.3%	2.9%	부합
HD현대일렉트릭	11,418	2,870	26.0%	37.2%	2.7%	0.6%	부합
효성중공업	16,870	2,643	10.6%	60.9%	-6.9%	-9.1%	하회
한전KPS	4,379	436	-3.5%	-33.6%	-2.2%	-30.1%	하회
한국전력	219,189	11,286	-0.1%	-47.2%	-1.3%	-42.5%	하회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전력기기:** 최근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AI·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기대가 높아지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체의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 그동안 양호한 실적에도 미국 일부 지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및 전력비 상승 우려가 주가를 제약함.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높은 수주잔고를 감안하면 구조적인 업황 성장세는 유효하며,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9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전망
- **원전:**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기대감으로 최근 원전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 다만 연초에도 유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 조정을 경험한 만큼 단기 과열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제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투자 규모와 사업·수익 배분 등 계약조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할 경우 기대감이 낮아지며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임

9월

Top Picks

효성중공업

- 2H26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1,887억원(+24.4% YoY), 7,353억원(+53.1% YoY)으로 전망됨. 견조한 수주 흐름과 국내외 증설을 기반으로 한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높은 상황
- 연간 수주 가이드스를 12조원(기존 8.4조원)으로 43% 상향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준임.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가스차단기(GCB) 등 핵심 제품은 높은 기술 장벽과 제한적인 공급 구조로 가격 협상력이 견조해 선별 수주를 통한 높은 수익성도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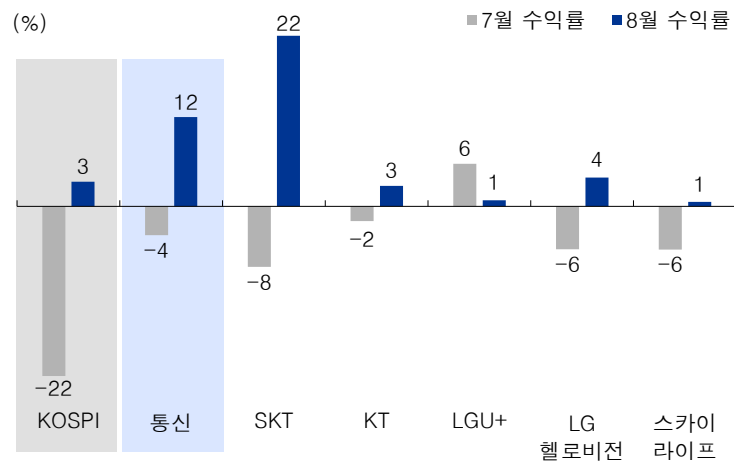
비에이치아이

- 2H26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199억원(+32.0% YoY), 625억원(+46.5% YoY)으로 전망됨
- HRSG 뿐 아니라 보일러와 B.O.P의 풍부한 수주잔고가 매출화되며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환율 하락세 지속 시 파생상품 평가손실 환입에 따른 순이익 개선도 기대

8월

성과 분석

- 8월 통신 업종은 11.7%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8.5%p 크게 상회함
- SK텔레콤이 2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 1% 상승에 그침. SK텔레콤의 주가 상승은 2023년 1억 달러 투자한 엔트로픽의 하반기 IPO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통신 3사, 2분기 양호한 실적 기록

- IBKS 커버리지 3개 기업 모두 2Q26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
- SK텔레콤은 본업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SKB의 비용효율화와 데이터센터 성장이 실적을 견인. KT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 영향 지속되며 감익이 불가피했으나 이전 분기 대비로는 성장. LG유플러스는 공공네트워크 설비 사용료 환급이 일회성으로 반영. 일회성 비용 제외 시에도 성장 지속

2Q26 실적 vs 컨센서스

(단위: 억원)	2Q26 실적		전년 대비		컨센 대비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LG유플러스	36,949	3,445	-3.9%	13.1%	-5.2%	11.0%	상회
KT	66,799	6,483	-10.1%	-36.1%	-2.2%	7.4%	상회
SK텔레콤	43,591	5,660	0.5%	67.3%	-1.2%	3.7%	상회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7월에 시장 대비 선방한 만큼, 8월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업종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보안 사고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안정적인 경쟁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하반기 통신3사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조 8,258억원(+2.3% YoY), 2조 2,154억원(+75.1% YoY)으로 전망됨. SK텔레콤의 경우 작년 하반기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이 약 5,000억원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8,001억원(+377.7% YoY)으로 회복, 통신3사 중 수익성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9월

Top Picks

KT

- 고객 보답 프로그램 영향은 7월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3분기부터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과징금 부과 이슈도 일단락되면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2028년 AI전환(AI) 관련 매출을 2025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2031년까지 AI데이터센터 1GW(현재 152MW)와 해저케이블 데이터 전송용량 90Tbps 이상(현재 38Tbps)을 추가 확보할 계획. 성장사업 확대와 주주환원을 병행함에 따라 중장기 주가 재평가가 기대됨

LG유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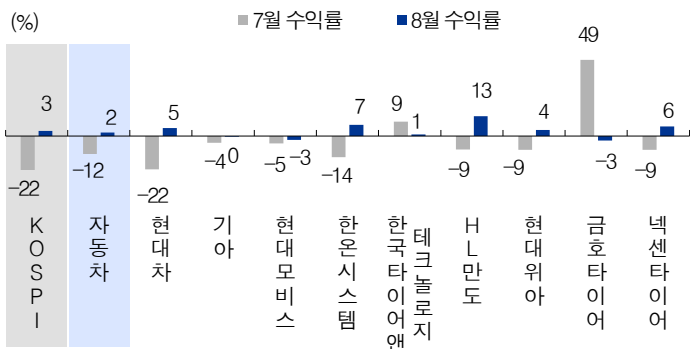
- 전년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약 1,500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가 반영되는 가운데, 비용 구조 개선과 유무선 가입자 기반 확대 효과가 이어지며 2H26 영업이익이 4,999억원(+50.5% YoY)으로 증가할 전망

자동차

8월

성과 분석

- 8월 자동차 업종은 2.2%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약 1.1%p 하회
- 8월 25일 현대차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누적 파업 시간 60시간으로 생산량 5.5만여대, 매출 2.3조원 이상 손실 추정
- 8월 26일 현대차 CEO Investor Day 진행. 핵심 내용 1)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 영업이익률 9% 이상 목표, 2) 2026년 4분기 Waymo용 로보택시 공급, 3) 2026년 말 RMAC 규모 10배 확대, 4) 2028년 아틀라스 HMGMA 투입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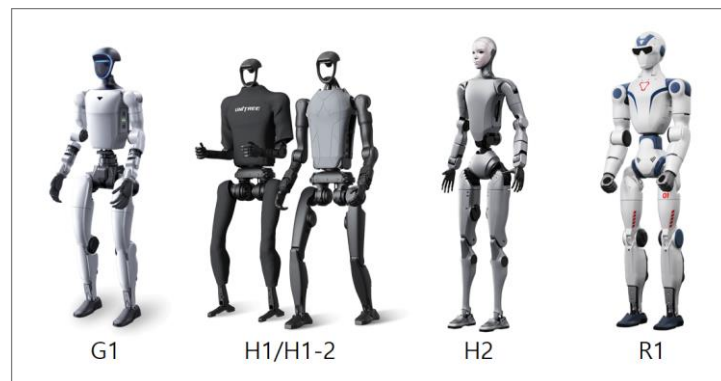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중국 유니트리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 유니트리는 세계 최대 로봇개 제조사이자 출하량 기준 세계 2위 휴머노이드 제조사. 26년 상반기 기준 휴머노이드 7,000대 이상 출하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31% 차지
- 8월 19일(현지일 기준)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공모가는 PSR 기준 36배 수준. 주가는 상장 당일 460% 폭등하며 이미 양산 중인 기업에 대해 시장 내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 증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제품군



자료: Unitree, IBK투자증권

자동차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미국 로보틱스 핵심시설은 3개로 1) 생산: RA(Robotics America), 2) 훈련 RMCA(로봇메타응용센터), 3) 부품: Actuator Manufacturing
- 28년부터 로봇 3만대, 액추에이터 35만개 CAPA 보유 예정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9월

Top Picks

현대차

-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될 로보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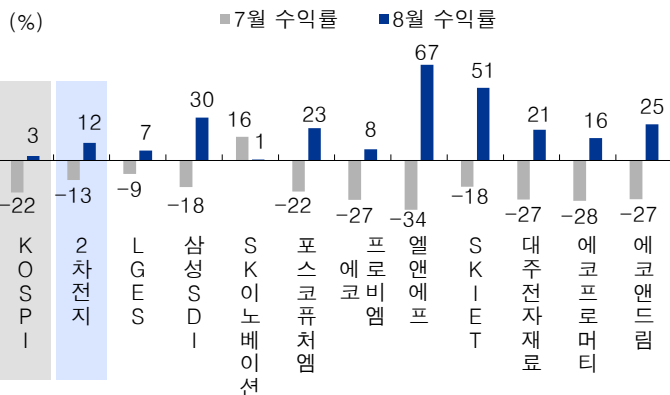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 (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2차전지

8월

성과 분석

- 8월 2차전지 업종은 12.3% 상승. 코스피 수익률 대비 약 9.1%p 상회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랜싱 공장 가동 소식. 연산 35GWh 규모로 ESS용 LFP와 EV용 NCM 배터리 동시 생산. 연말까지 ESS용 LFP CAPA 50GWh 이상 확보 목표
- 삼성SDI, 시너지셀즈 JV의 GM 지분 49.99%를 전량 인수 결정. 인수 후 기존 CAPA 일부 ESS로 전환 예정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9.3% 상승, CATL은 +4.3%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22.0배, 27년 15.3배, 28년 11.8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96.4%, 27년 +71.9%, 28년 +68.6%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669.4	54.6	29.7	22.0	15.3	11.8
삼성SDI	76.8	29.9	18.8	20.5	13.9	10.9
SK이노베이션	8.3	15.2	14.0	5.9	8.1	7.6
CATL	18.3	14.6	12.2	11.2	8.9	7.0
Panasonic	41.0	21.0	17.1	16.4	10.7	9.1
BYD	18.3	14.2	11.9	6.4	5.2	4.0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440.5	228.3	118.0	56.1	43.7	34.1
에코프로비엠	510.0	153.7	88.0	66.0	41.6	28.3
엘앤에프	N/A	75.2	39.2	21.4	21.4	17.1
Umicore	13.0	12.7	11.9	7.0	6.8	6.4
Sumitomo Metal	21.7	13.9	13.9	18.8	10.4	9.8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8월 26일 기준

2차전지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드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검색량 79% 증가, 6월 유럽 BEV 판매량은 YoY +37.5% 급등하며 관심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9월

Top Picks

삼성SDI

- 북미향 ESS의 경우 2028년 물량까지 전량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

더블유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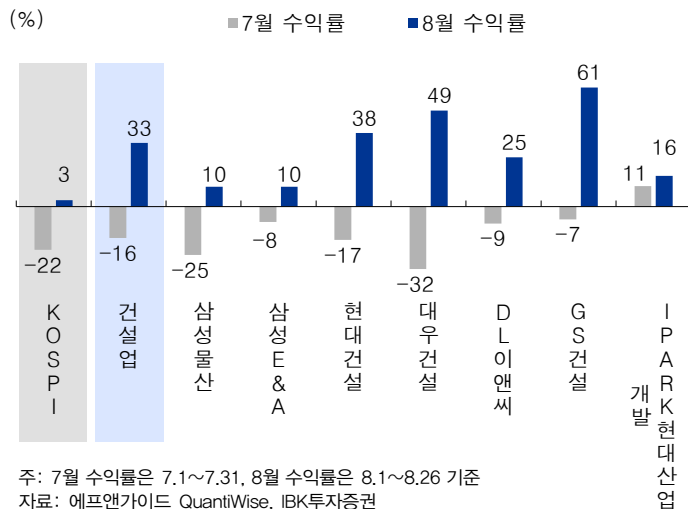
- 2026년 연간 판매량 가이드는 YoY +100% 이상을 제시하며 평균 가동률도 25년 40% 수준에서, 26년 60~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제시
- 북미 ESS향 중심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분리막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은 ESS 50%, EV 30%, 소형전지 20%로, ESS 위주의 높은 성장 기대

건설/부동산

8월

성과 분석

- 8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32.7%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29.5%p 상회
- 반도체 인프라, AI데이터센터, 원자력 플랜트 등 비주택 부문 수주 증가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지수 전반의 하락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GS그룹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 GS그룹은 강원도 동해시에 총 2.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건설할 계획. 2028년까지 1단계 1.2GW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추가 1.2GW를 더하는 일정으로 총 투자비는 약 30조 원에 달함. 최근에는 사업부지 확정과 산업단지 업종 변경까지 완료하면서 이르면 2026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
-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GS그룹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밸류체인을 그룹 내부에서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점. GS파워, GS EPS, GS E&R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GS건설, 자이C&A, DC브릿지가 설계, 시공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
- 특히 동해에는 GS E&R 자회사인 GS동해전력이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전력 조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기존에 구축된 그룹역량을 데이터센터 사업에 반영한 점은 GS그룹의 미래 전략사업에 방향성을 의미

건설/부동산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건설/기자재 업종에서는 향후 수주잔고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신규 시장에 주목할 필요. 건설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기자재에서는 북미 LNG가 이에 해당한다. 두 시장 모두 지난 1~2년간 투자계획과 FID가 먼저 발표됐지만 실제 국내 업체의 수주와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시차가 축소되면서 계획이 실제 발주로 전환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
- 데이터센터에서는 GS그룹의 동해 2.4GW 프로젝트가 대표적. GW 단위의 캠퍼스형 프로젝트가 등장하면서 단일 프로젝트가 건설사의 연간 신규수주를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규모. 기자재에서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피팅 발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주목. 2025~2026년 FID를 통과한 프로젝트들이 EPC 및 조달 단계로 이동 중

9월

Top Picks

GS건설

- GS그룹 데이터센터 개발 계획 2.4GW, 2028년까지 1.2GW 준공 및 관련 시공비 약 10조 원 추정
- 데이터센터 수주 이력 21건을 확보한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 주택 중심 포트폴리오의 첨단산업 확장 기대
- 주택 원가율 정상화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 및 밸류에이션 동반 개선 전망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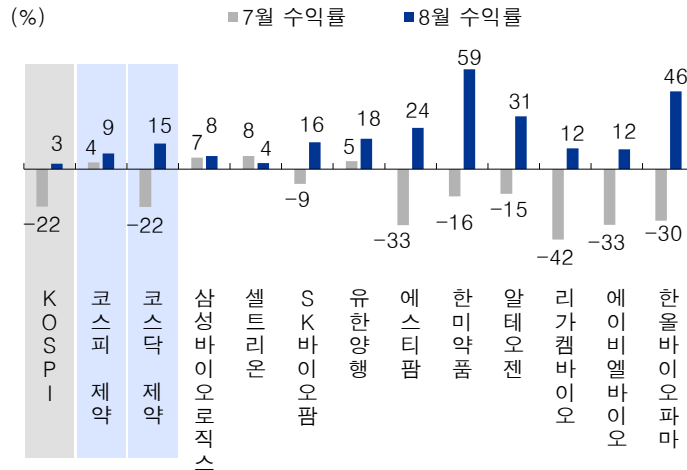
- 미국 LNG 투자는 이미 FID 기대감의 영역을 넘어 실제 EPC 및 기자재 발주 단계에 진입
- 특히 Commonwealth LNG, Woodside Louisiana LNG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이 이어지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피팅 발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제약/바이오

8월

성과 분석

- 8월 코스피 제약 지수는 9.2%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6.0%p 상회함. 코스닥 제약 지수는 15.1% 상승하며 코스닥 수익률을 0.3%p 상회함
-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된 가운데, 모더나의 mRNA 암백신 3상 성공 등 긍정적인 이슈가 더해지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심리가 개선됨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한미약품, 비만 신약 후보 물질 HM17321 기술이전

- 8월 24일,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 UCN2 유사체 HM17321을 23억 500만 달러(약 3.2조원) 규모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함
- 6월 일라이 릴리와의 L/O 이후 3개월만에 조 단위 계약이 이어지면서, 이익 레벨이 높아지는 동시에 HM15275 등 후속 비만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와 추가 기술이전 기대감이 이어질 전망

SK바이오팜, 차세대 뇌전증 신약 오파칼림 기술도입

- 바이오헤이븐으로부터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 (BHV-7000)을 총 7억 9,500만 달러(약 1조 996억원) 규모에 기술도입 계약 체결
- 현재 글로벌 임상 2·3상이 진행 중으로, 임상 성공 시 2029년 미국 출시를 목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세노바메이트 중심의 단일 제품 구조에서 벗어나 뇌전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미국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제약/바이오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9월 12~15일 서울에서 세계폐암학회(WCLC)가 개최될 예정. 국내에서는 폐암 치료제 관련 주요 기업으로 유한양행, 오스코텍, 보로노이 등이 있음. 임상 결과에 따라 개별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유의미한 데이터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
- 9월 28일부터 개최되는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는 경구 GLP-1, 아밀린 등 차세대 비만치료제가 주요 화두로 부각될 전망. 기존 주사제 중심의 시장이 차별화된 제형 및 기전으로 확대되는 만큼,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9월

Top Picks

한울바이오파마

- 하반기 IMVT-1402의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RA) 후속 데이터와 피부홍반루푸스(CLE) 개념입증 임상 발표가 예정. RA는 중간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가운데, 최종 탑라인 데이터와 함께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의 FDA 협의 내용도 공유될 예정
- 2027년에는 핵심 적응증인 그레이브스병에서 2건의 허가 목적 임상 톱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 지속

오스코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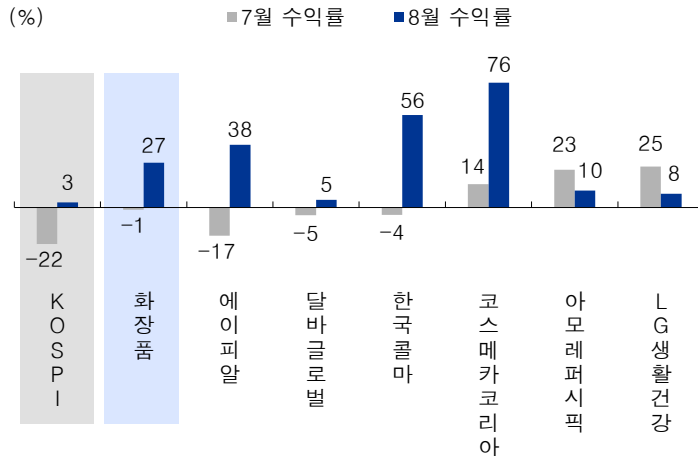
-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처방 확대에 따라 일회성 기술료 중심에서 반복적인 로열티 수익 구조로 전환될 전망. 미국 1차 치료 선호 요법 권고와 아미반타맵 SC 제형의 투약 편의성 개선을 바탕으로 처방 확대가 이어지며 로열티 수익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
-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GNS-3545와 신장섬유화 치료제 OCT-648이 차기 기술이전 후보로 부각. GNS-3545는 임상 1상을 마치고 기술이전 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OCT-648도 2027년 임상 진입을 목표

화장품

8월

성과 분석

- 8월 화장품 업종은 27.4%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4.1%p 상회함
- 브랜드, ODM, 부자재 등 화장품 밸류체인 전반에서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섹터 전반의 주가 상승을 견인함
- 8월 수출액 잠정치 역시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하며 하반기에도 수출 데이터 호조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주: 7월 수익률은 7.1~7.31, 8월 수익률은 8.1~8.26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8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지역별, 채널별 글로벌 유통망 확대

- 8월 1~20일 화장품 수출액 잠정치 7.14억 달러(+71.8% YoY)를 기록. 미국과 캐나다의 합산 수출액은 2.38억 달러(+182.7% YoY)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 유럽은 1.62억 달러(+108.4% YoY)로 미주와 유럽 지역 고성장이 지속됨
- 미국 아마존과 틱톡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검증된 브랜드가 오프라인 채널 판매로 이어지고, 미주에서 유럽까지 K뷰티 수요 확대되며 지역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스킨케어에 이어 헤어케어로 확장

- 품목별로는 기초 카테고리가 5.28억 달러로 +31% 성장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함. 색조 카테고리는 1.37억 달러(-7% YoY)를 기록함. 미국향 헤어 카테고리 수출액 +89% 성장하며 K뷰티가 헤어 카테고리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함

화장품

9월

전망 및 투자전략

8월



9월



10월



- 지역별, 채널별, 카테고리별 유례없는 한국 화장품의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 브랜드 기업들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하고 ODM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3분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짐
- 수출 국가 다변화와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화장품 섹터의 전통적인 상고하저 트렌드가 완화되는 모습임. 브랜드 및 ODM 기업들의 하반기 매출액 성장과 이익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 10월에 진행됐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2분기(6월)에 진행되며 3분기에 Big 이벤트는 부재하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망 확장, 미주에서 유럽 및 인접 국가로 K뷰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9월

Top Picks

에이피알

-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675억 원(+99.8% YoY), 영업이익 188.1억 원(+88.4% YoY)으로 추정
-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강한 매출 성장을 반영하여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을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매출액 3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이익률 24~26% 수준을 제시함

한국콜마

-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8,104억 원(+18.7% YoY), 영업이익 847억 원(+45.2% YoY)로 추정. 2분기에는 ODM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기록함
- 기초 중심의 화장품 수출 증가 기조에 따라 기초와 선케어 합산 매출 비중이 80% 후반까지 상승한 부분은 고무적임
- 자회사 연우가 흑자전환하며 연결 실적 기여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3	95.3
Trading Buy (중립)	6	4
중립	1	0.7
매도	0	0

MEMO



MEMO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김예슬	연구원	글로벌 전략	6915-5526	chchu93@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ie1125@ibks.com
장성호	연구원	조선/기계/운송	6915-5661	cpszoo9080@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유틸리티/통신/방산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화장품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코스닥 리서치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조은애	연구위원	코스닥 헬스케어	6915-5689	goodkid@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코스닥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코스닥 반도체/장비	6915-5473	kmg@ibks.com
김혜빈	연구원	코스닥 로봇	6915-5669	hyebhinkim@ibks.com
유창근	연구원	코스닥 스톡캡	6915-5655	changsic12@ibks.com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 하는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